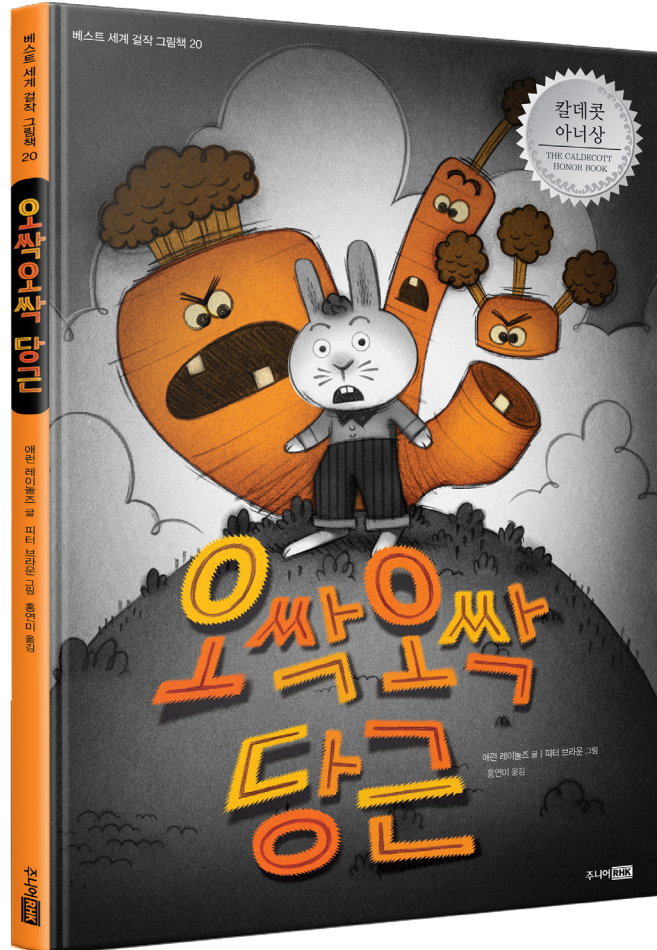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오싹오싹 당근>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오싹오싹 당근

에란 레이놀즈 글 | 피터 브라운 그림 | 홍연미 옮김 | 40쪽 | 12,000원 | ISBN 978-89-255-6935-2 (77830) | 초등 전 학년 대상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3-1 도덕 1. 나와 너, 우리 함께

3-2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3-2 과학 2. 동물의 생활

4-1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4-2 국어 1.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오

5-1 국어 10. 주인공이 되어

5-2 도덕 5.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부모님들의 ‘독서에 관한 걱정’을 자주 마주합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부터 “좋아하는 책만 계속 읽으니 어찌면 좋지요.”까지. 그런 우려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해 드리는 말은 늘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으려면 독서가 재밌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재밌는 독서의 가장 좋은 시작은 어른이 함께 읽어 주는 것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밌는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길 바란다면 어른인 우리가 먼저 읽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책 읽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이야기와 아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어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하며 책을 아이와 연결해 주세요. 아이가 분량이 긴 책을 소화하기 힘들어한다면 재밌는 그림책을 읽어 주세요. 읽어 주는 어른도, 듣는 아이도 부담스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림책 《오싹오싹 당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공포와 반전까지 맛볼 수 있는 책입니다. 좋은 독서의 시작이 되어 줄 수 있지요. 《오싹오싹 당근》의 주인공인 토끼 ‘재스퍼’와 당근들은 각자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처음엔 당근들이 오싹오싹 무섭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당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재스퍼 역시 오싹오싹한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아이와 함께 이야기 자체의 재미를 느끼며 한 번, 각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번,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한 번 읽어 보세요. 한 작품을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 번 읽다 보면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상상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더 폭넓게 사고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 <해와 바람>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게 만든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책 좀 읽어!”라는 날카로운 잔소리보다는 어른들이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녹일 거예요.

최유라(청주 청원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오랫동안 책으로 수업하고 책을 만든 과정과 결과를 SNS와 강의를 통해 선생님과 양육자에 공유하며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쌤스쿨>, 그림책 연구회 <다독다독>
- 충북, 충남교육청 초등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포함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미션 1 : 당근이 왜?



책을 읽기 전,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이 그림책의 제목은 《오싹오싹 당근이》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근을 ‘오싹오싹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 그림책의 제목이 《오싹오싹 당근이》인 이유는?



미션 2 : 토끼 재스퍼와 당근들의 마음 읽기



책을 읽으며 이야기에 드러난 토끼 재스퍼의 마음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읽으며 당근들의 마음도 상상해서 정리해 봅시다.

토끼 재스퍼의 마음	재스퍼가 당근을 마구마구 먹을 때	당근들의 마음

토끼 재스퍼의 마음	재스퍼의 눈에 당근이 계속 보일 때	당근들의 마음

토끼 재스퍼의 마음	마지막 장면에서	당근들의 마음

미션 3 : 오싹오싹 내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토끼 재스퍼처럼 무언가가 오싹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나요?
무엇을 오싹하게 느꼈었는지 괄호 안에 쓰고 그때의 상황을 그림이나 글로 설명해 봅시다.



오싹오싹 ()

미션 4 : 당근밭 만들기



우리도 당근밭을 만들어 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당근밭을 만들어 보세요.
색연필이나 물감을 사용해 그려도 좋고, 색종이를 잘라 붙여도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당근밭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미션 5 :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오삭오삭 당근》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과연 재스퍼와 당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며 4컷 만화를 꾸며 봅시다.

1 2
3 4

미션 6 : "이런 거 어때요?" 나도 작가!



우리도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한번 바꿔 볼까요?
계속 당근을 먹는 재스퍼, 여러분이 당근이라면 어떻게 막았을까요?
계속 오싹하게 하는 당근들, 여러분이 재스퍼라면 어떻게 당근들을 막았을까요?

① 만약 내가 당근이었다면 계속 당근을 먹는 재스퍼를 어떻게 했을까요?

② 만약 내가 재스퍼였다면 계속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당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③ 당근과 재스퍼가 내가 생각한 방법처럼 행동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육자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안내서

6가지 미션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저절로 책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으며, 이야기에 담긴 유머와 재치, 공포와 반전을 느끼며 책 읽는 재미를 스스로 깨달아 갈 거예요.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그림책 《오싹오싹 당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모두 갖춘 멋진 그림책입니다. 어쩐지 으스스하지만 재밌어요. 마지막 반전은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각 캐릭터의 입장에 이입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그림책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며 볼 수 있는 책이라 더욱 추천하게 됩니다. 토끼 재스퍼와 당근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아이와 다양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
- 아이와 오싹한 경험에 관해 말해 보고 싶을 때
- 대립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각 캐릭터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 주고 싶을 때
- 문제 해결력과 상상력을 길러 주고 싶을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당근은 왜?

책을 읽기 전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야기를 이미 읽어 본 아이도, 아직 읽어 보지 않은 아이도 모두 같이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오싹한 당근'의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당근을 편식하는 아이의 이야기, 당근 귀신이 나타나는 이야기 등 아이들이 다양한 상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토끼 재스퍼와 당근들의 마음 읽기

《오싹오싹 당근은》 주인공인 재스퍼의 시점으로 흘러갑니다. 재스퍼의 마음 읽기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더 읽으며 이야기 너머에 숨은 당근들의 마음을 상상하여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인물의 감정을 상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감정을 잘 상상해 내지 못하면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 오싹오싹 내 이야기

이야기와 아이의 경험을 연결해 보는 활동입니다. 재스퍼가 경험했던 오싹한 순간은 우리 아이들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무서워했는지, 또 언제, 무엇을 오싹하게 느꼈는지 표현해 보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필요하다면 아이의 공포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설명 등을 곁들여도 좋겠지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 당근밭 만들기

아이들이 자신만의 당근밭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아이에게 “이 당근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럴 때 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등과 같은 질문을 던져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당근들의 이야기를 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꼭 활동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색 점토, 양말과 솜 등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당근밭을 표현해 보아도 재밌을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과연 재스퍼와 당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스퍼가 만든 밭 안에 갇힌 당근들과 오싹한 당근들에게서 벗어난 재스퍼의 뒷이야기를 생각하며 4컷 만화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화로 표현한 이야기들을 미션 6으로 확장시켜 보세요.

책을 읽고 다 함께

미션 6 : “이런 거 어때요?” 나도 작가!

작가가 되어 책의 내용을 다르게 써 보는 활동입니다. 재스퍼를 막기 위해 당근들은 오싹오싹 당근이 됩니다.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당근들을 막기 위해 내가 재스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캐릭터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해 주세요.